

韓國戰爭에 있어서 休戰協商과 軍事作戰과의 關聯性 分析

軍教授 李 忠 珍
(戰史科, 助教授)

< 목 차 >

- | | |
|-----------------|--------------------|
| I. 서론 | V. 휴전협상과 군사작전 |
| II. 전쟁양상의 변화 | 1. 초기협상과 작전 |
| III. 협상의 배경과 정책 | 2. 유엔군의 군사력 운용의 한계 |
| 1. 공산측의 정책 | 3. 중반기협상과 작전 |
| 2. 유엔군측의 정책 | 4. 후반기협상과 작전 |
| IV. 전선상황 | 5. 공산군의 기도 |
| 1. 전선교착과 군사력증강 | 6. 종합분석 |
| 2. 유엔군 | VI. 결론 |

I. 서론

전쟁은 정치의 한 수단이라고 하는 크라우제비츠의 주장은 한국전쟁의 휴전협상과정에서도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전쟁을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정책이 결정되고 협상이 개시되자 군사작전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협상의 진척에 따라 또는 분위기에 따라 군지휘관의 의도와는 달리 억제되기도 하고 별다른 군사적 의미도 없이 희생을 무릅쓰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군사작전이 휴전협상에 어떻게 이용되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를 규명하고 장차 어떤 전쟁에서도 정치적 협상이 시도될 수 있고 그 협상을 위하여 전투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에서의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현상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전쟁발발 이후 휴전협상이 개시된 1951.7.10부터 1953.7.27 휴전조인이 이루어진 2년간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간된 문헌들을 자료로 하였으며 휴전협상과 군사작전을 별도로 취급 기술된 사항들을 동일시기에 놓고 각각의 현상이 어떻게 연관성 있게 이루어졌는가를 접합시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을 택했다.

II. 전쟁양상의 변화

1950. 6. 25 공산군의 기습남침으로 국군은 군사력의 절대적인 열세로 부득이 낙동강선까지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철수하였다. 유엔군의 개입과 국군의 결사적 저항으로 낙동강 방어에 성공하고 9. 15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낙동강방어선에서 일제히 반격을 개시 9. 30경에는 38선까지 도달 실지를 회복하였다.

10. 1 38선을 돌파 북진, 10. 10에는 원산, 10. 19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10. 26에는 국군 6사단 7연대 일부가 압록강 연안 초산까지 이르고 동부에서는 함경북도 혜산진과 청진까지 진출 전쟁을 종결하는 듯 하였으나 10. 14부터 중공의 개입으로¹ 철수하였다. 1951. 1. 4에는 서울을 다시 적에게 내주고 수원, 삼척선까지 철수하였다가 2. 21 재반격을 실시 서울을 수복하고 현 휴전선 가까이까지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중공군과 북괴군은 1951. 2월 공세 4월공세, 5월공세등 이른바 춘계공세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아군은 역습과 반격으로 이를 격퇴하였고 적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전쟁은 중공의 개입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군사력의 균형은 이루어지고 무력을 통한 전쟁종결에 따르는 위험 요소인 세계대전으로까지의 확전이라는 문제로 제한적이며 국지전으로 한정하려는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²

III. 협상의 배경과 정책

1950. 10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미국을 위시한 참전각국은 전쟁과 협상중 양자 택일을 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협상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중공군의 공격으로 전선에 불안이 가중된 1950. 12. 4 워싱턴에서부터 나타났다. 영국수상 클레멘트 매틀리는 “한국전쟁이 대중공전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세계대전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회의 건의를 미국측에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 트루먼과 회담에 들어갔다. 매틀리는 군사적인 견지에서 가능한 조속히 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루먼도 동조하였으나 중공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가 의문이었다. 그러나 매틀리와 트루먼은 한국전쟁의 휴전을 제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내와 협상을 통한 적대행위의 종식을 모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유엔의 목적을 달성하고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한국문제

- 1) 陸軍士官學校(著), 韓國戰爭史, 日新社 1983. P.302
중공군 15만명이 1950. 10. 14부터 압록강을 넘어 침투하였으나 맥아더가 이 사실을 공식발표한 것은 11. 6이었다.
- 2) 陸軍士官學校 上揭書, P.392
1951. 4. 5 미국방장관에게 제출한 JCS의 건의서에서 군사적 압력만으로 한국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

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중공측이 그와 비슷한 태도를 가졌다는 어떤 징후를 보인다면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전선상황은 아군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국면으로 변하고 있었다. 수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은 인해전술로 공격을 개시 5개월동안 유엔군을 밀어내리고 있었다.

맥아더장군은 12월초 급박한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참모총장 콜린스장군에게 “중공군이 자발적으로 38선이북에 머무르는 것을 동의한다면 휴전을 유엔군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트루먼대통령과 애틀리 영국수상이 중공에 대해 전쟁종결을 위한 협상을 할 용의를 밝힌 직후 유엔에서는 아랍 13개국 이 휴전을 촉구하였다. 유엔총회는 1950. 12. 4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년봄까지 중공군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협상에 대한 해결을 그들이 모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전황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51년초에는 중공군의 압력에 의해 서울을 내주어야 했고, 워싱턴에서도 일본의 중요성을 고려 부대를 일본으로 철수할 것을 고려하라는 의사를 맥아더에게 통보하고 맥아더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전선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한 적대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유엔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것, 둘째, 대만을 중공에 넘겨줄 것, 셋째, 중공을 국제연합에 가입시켜줄 것 등이었다.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군사력 압력만이 적을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일 수 밖에 없었다.

1. 공산측의 정책

1951. 5월 중공군의 제 2차춘계공세가 좌절되고 유엔군이 반격을 개시 38선 이북으로 공산군을 격퇴한다는 추격을 중지하였다. 이는 전세가 불리해지면 중공이 협상에 응해 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951. 6. 23 소련부수상겸 유엔대표 야콥 . 말리크(Jacob Malik)는 「평화의 대가」(Price of Peace)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소련 인민은 한국에서 평화적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⁵ 언급하므로써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에 대한 첫 징조를 보였으며, 첫단계로 교전국은 사격을 중지하고 양측이 38선에서 철수하는 정전의 가능성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몇일 후 북경정부가 말리크의 제안을 찬성하였지만 자기들의 조건을 관철시키려는 희망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3) 國防部, 護國 7月號, 吳昊煥

7. 27 휴전회담의 비화 <이 형근장군 증언> 1985.PP. 22-23

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S.M. 1966. P.15

5) Ibid

이어서 27일 소련의 앤드리 그로미코(Andrei Gromyko) 부외상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 앨런 G. 켈크(Alan G. Kirk)에게 야전지휘관들에 의한 휴전협상이 되어야하며 이 협상은 어떠한 정치 또는 영토상에 관련됨이 없이 엄격한 군사적인 문제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당시 소련수뇌들이 휴전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보면 ① 춘계공세의 실패로 보아 유엔군을 남쪽까지 밀고 내려가는 것은 실현성이 없으며, ② 제공권의 상실로는 현전선마저 유지가 어렵고 ③ 초기인해전술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인력손실만 가져왔고 ④ 유엔군을 격퇴시킬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였으며 ⑤ 1951. 2. 1 유엔이 중공을 침략자로 낙인을 찍으므로서 유엔가입이 불리하다는 것이었다.⁶⁾

2. 유엔군측의 정책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고 유엔군이 퇴각하자 새로운 상황에 관한 철저한 재 평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선에서 반격으로 38선 이남지역을 회복하고 38선을 돌파 북진을 개시할 때 우려했던 중공군의 개입과 소련의 개입이 현실을 나타낸 이상 무력으로의 전쟁종결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확전의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참전회원국 어느국가도 병력의 증원을 원치않고 상당한 병력증원이 없이는 중공군을 패배시킨다는 것은 거의 절망적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은 종전에 대한 최선의 방책으로 한국문제를 협상에 의해서 타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자면 다량의 인원과 물자를 소모해야하고 중국본토에 대한 폭격과 해안에 대한 봉쇄등을 수반해야 하며 이에 소련까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마저 있었다.

그위에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확전을 극력 반대하고 나왔다. 물론 동맹국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한국전쟁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다른 여러가지 문제와 사항도 고려해야만 했다. 유럽강대국들은 유럽대륙에 뻗치고 있는 소련의 압력을 우려하고 있었고 또한 미국이 소련과 맞서 그의 방어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구성해 놓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증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⁷⁾ 이제와서 군사적 승리를 모색한다는 것은 유럽에서의 서방측 방위력의 강화를 더욱 연기시키는 결과를 줄 뿐만 아니라 고귀한 인명과 재산의 소모와 3차세계대전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될지도 몰랐다. 이런시점에서 신중함이 만용보다는 더 현명하고 협상을 통한 타결이 군사적인 결단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였다.

6) 國防部, 護國7月號, 吳基完, 休戰앞두고 연일 白兵戰, 1985. P.39

7) Walter G. Hermes, op. cit. P. 206

1951. 3. 19 합참본부와 국무성 및 국방성의 회의과정에서 한국에서 휴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전방안이 세밀히 논의 되었다. 특히 50. 12. 12에 제시되었던 휴전조건을 재검토하고 현재도 그런 조건들이 타당한가를 결정하도록 지시받았다. 1951. 5월 중순에 오랫동안 합참본부를 포함해서 모든 중요한 자문기관들의 견해를 주의깊게 고려한 후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공산주의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현 시점에서 따라야 할 정책안을 제출하였다.

정책안은 5. 17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군사적해결이 아니라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한국을 이룩할 정치적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엔기구를 통해 적합한 휴전조건하에서 최소한 전투행위를 끝내는 해결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휴전이 성립될 수 있기까지 미국은 계속 침략자에 대항하고 그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 협상으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현재의 군사적 행동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군사적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여 남한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한국이외의 지역에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능력을 제한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외의 지역으로 전쟁을 확대하지 않도록 결정한 반면 한국에서 가능한 중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중공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위신을 추락시키려고 하였다.

더우기 합참본부는 중공군이 한국이외의 지역에서 침략행위를 행하거나 혹은 유엔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중공에 응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응징조치는 이미 맥아더장군이 제안했던 봉쇄, 중공에 대한 군사작전 그리고 자유중국군의 이용 등을 포함한 것이었다.⁸

IV. 전 선 상 황

1. 전선교착과 군사력증강

공산군측이나 유엔군측은 공이 한국전쟁은 군사력으로 획기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고 유동적인 전투는 단념하고 현 접촉선을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출혈을 강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로 나왔다.

공산군은 1951. 1 신정공세, 2월공세 그리고 4월과 5월에 걸쳐 춘계공세를 감행하였으나 유엔군의 전선을 일시적으로 밀어내고 대규모 돌파구를 형성하는데 그치고 유엔군의 반격으로 격퇴당하여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의 손실과 병참선의 악화로 작전을 계속하기에 곤

8) 陸軍本部(譯) James F. Schanabel, 政策과 指導 陸軍本部, 1974. P. 493

란을 받게 되었다.⁹⁾ 따라서 그들은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병력과 보급품을 보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면서 유엔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급급하였다.

1951. 7. 1 현재 그들의 병력을 보면 중공군이 248,100 명, 북괴군이 211,100 명이었고 남한에 게릴라 7,500 명이 활동하고 있었다.¹⁰⁾ 배치는 서해안에 3개군단 동부에 4개군단을 두고 있었다.

2. 유엔군

1951. 봄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난 후 미 8군은 반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Van Fleet) 장군에게 제한을 가하고 있는 요소는 두가지로, 기동이나 포위로 적을 섬멸할 충분한 부대를 보유치 못하였다는 것과(군사적인 문제) 하나는 렛지웨이와 합동참모회의의 승락을 받지 않고는 38선을 가로지르는 현 접촉선인 캔서스 와이오밍선(Kansas, Wyoming) 전방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었다.¹¹⁾ (정치적 문제) 이러한 제한 요소와 유엔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합군이 압록강으로 또다시 진격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다. 따라서 밴플리트장군이 할 수 있는 일은 38선 북쪽 가까운 강제고지상에 방어선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8군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적에게는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한 제한된 공격과 전진을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 유동전은 막을 내리고 교착된 전선에서의 한정된 진지전이 시작되었다. 진지전은 캔서스. 와이오밍선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는데 캔서스선은 임진강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임진강과 38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지나 화천저수지 그리고 38선 25마일 북방 해안에 이르는 선이었고, 와이오밍선은 캔서스선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초선의 성격으로 설치된 선으로 임진강 하구로부터 시작 철원, 금화 화천저수지 그리고 캔서스선으로 연결되었다.

밴플리트는 와이오밍선을 따라 진지를 구축할 것을 결심 동부로부터 국군 제1군단 그 좌측에 미 제10군단 그 다음 미 제9군단, 중서부에 미 제1군단을 배치 축성을 실시 7월1일까지는 거의 완료하였다. 그 다음에는 7월 30일까지 와이오밍선을 주저항선으로 간주하고 적의 침투 내지 국부적 공격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아 공히 진지를 보강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목적은 휴전협상의 전쟁이나 결과 여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군사적 공세를 저지하고 필요시 공격의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9) 上揭書, P. 490

리지웨이는 「확실히 중공군과 북괴군은 현재 다같이 해체 될 상태에 놓였다」라고 판단했다.

10) Walter G. Hermes, op, cit. P. 76

11) Ibid, P. 73

V. 휴전협상과 군사작전

1. 초기협상과 작전

1951. 7. 10 개성에서 협상이 개시되면서 전투가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작전은 완만해지고 불필요한 희생을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유엔군 지휘관 및 장병들에게 파급되었다. 따라서 릿지웨이(Matthew G. Ridgway) 장군은 장병들의 사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정신무장을 강조하였고 적의 활동상황과 첩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규모 정찰대를 전방에 수시 파견하도록 하였으며, 회담중 적이 병력과 보급품을 보충, 회담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대규모 공격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공군과 해군 지휘관들에게는 적의 철도와 도로를 분쇄하는 한편 적을 섬멸하는데 최대한으로 공군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릿지웨이장군은 평양을 폭격함으로써 적의 공격 잠재능력을 감소하고 적으로 하여금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은 오히려 협상을 지연시킬까 염려 평양폭격을 허락하지 않았다.¹²⁾

적은 그들의 병력을 꾸준히 증강하였고 언제든지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있게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전선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즉 협상장소인 개성에서 중공군의 무력시위에 의한 유엔군측 협상대표들에 가한 위협 또한 그들의 조작에 의한 중공군 경비병들에 대한 기습공격사건을 유엔군측에 전가하는가 하면 유엔군 항공기가 회담부근에 폭격을 하였다고 억지를 쓰는 등 회담분위기를 공포로 몰고 가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 양보를 얻어내려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상 두 경우를 놓고 볼때 유엔군은 적 후방에 대해 공군력을 사용 전력보강을 방해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 반면 공산측은 직접 협상 당사자를 위협하면서 곤경에 빠뜨리려는 방법을 취했음을 쉽게 알수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군사분계선 문제는 유동적으로 38선으로 복귀하게 될지 현 접촉선으로할 것인지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전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사실상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

개성에 대한 공포분위기 상태에서는 회담을 계속할 수 없다는 유엔군측 주장으로 회담이 중단되었다가 판문점으로 장소를 변경한 후 10월부터 회담이 재개되었다.¹³⁾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다.

즉 회담장소 문제다. 1951. 6. 30 릿지웨이장군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첫회합을 원산항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에서 갖자고 제의한바 있었다. 그러나 공산측은 개성으로 할것을 제

12) Ibid, P. 33

13) Ibid, P. 21

7. 10 회담이 재개되고 7. 26 회담의제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의 했고 유엔군측은 이를 받아 드렸다. 그런데 당시 개성은 적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측 대표들의 신변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주었고 앞서 설명한 사건들을 야기시켜 결국은 당시 접촉선상인 판문점으로 내려오도록 만들었다. 이는 그 후 군사분계선 문제로 논란이 된 현 접촉선 기준시 이 지역만은 성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고 오늘날 휴전선의 서부는 가장 남쪽이면서 서울에서 불과 얼마되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다. 만일 최초 협상이 개성에서 열리지 않았더라면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개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군측 대표였던 하드스도(Henry I. Hodes) 같은 주장을 편바 있었다.¹⁴

한국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피아 공히 인식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 극단적인 어떤 군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는 만주 성역을 고의로 침해하려 하지 않았고 미국은 중공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군사적 경제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공산측도 일본기지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산지역에 대해서도 공습을 감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전쟁을 정치 및 군사적으로 국지화시키기 위해서 양측은 자발적으로 군사작전에 제한을 가하였다.

따라서 자연히 현 접촉선상 국한된 군사적 압력이나 그에 연관된 해·공군 작전에 국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협상에 있어서 군사적 압력의 한계는 명확히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10월 판문점으로 장소를 이동 협상이 재개되었을 때 주 논쟁의 초점은 군사분계선 문제였다. 그런데 7월 개성에서의 회담 결렬 이후 미 8군이 수행한 전선에서의 적에 대한 강타는 공산군의 공격능력을 극도로 고갈시켰고 적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영향을 주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8~10월에 있었던 지상작전을 통한 압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 제10군단지역의 판치볼(Punch Bowl) 지역작전이다. 국군1사단 및 수도사단 병력과 8사단이 공격에 가담하였고, 피의 능선에 대하여 미 제2사단과 국군 7사단이 공격 이를 점령하여 동부에서 남으로 쳐진 전선을 일직선으로 끌어 올리고 국군 1군단과 미 제10군단을 분리하려는 적의 공격 위협성을 경감하였다. 다음은 단장의 능선을 공격 10월 13일 이를 점령하였다. 중동부에서 공격작전을 마친다음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지역에서의 공격작전을 감행하였다. 미 제1군단은 제임스타운(James-Town)작전을 실시 10km의 전진이 가능해졌다. 다음은 미 제9군단지역에서의 작전으로 금성남쪽 약 4마일 선까지 진출하는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작전에 의해서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10월 25일 협상이 재개 됨으로써 미 8군의 제한된 공격이 중지되었으며 전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지상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수행되는 동안 릿지웨이장군 휘하에 있는 제5공군과 해군은 지상군 작전을 성

14) Ibid, P. 115

공시키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큰 공헌을 하였다. 5 공군은 공산군의 병참선을 방해하는데 대부분의 전투기, 전폭기 및 경폭격기의 공군력을 집중시켰다. 적군의 병력 및 장비의 남쪽으로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철도, 교량, 도로, 집결지, 보급소 등을 집중으로 폭격하였다. 또한 7월에 첫번째 평양에 대한 공격이 있던 다음 8.14에는 66대의 B-29폭격기와 56대의 전투기를 평양에 출격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¹⁵ 8.25일에는 35대의 B-29로 전쟁물자가 비축된 것으로 보이는 나진항에 대한 공격을 하였다.

해군은 함재기들을 이용 공산군측의 병참보급소 및 적의 진지를 폭격하였는데 8월 한달 7,300 회 이상 출격하였다. 한편 해군 함정은 국군 1군단 지역에서 함포사격으로 지원하였다. 8~10월의 장기 휴회기간에 지상과 공중에서 가한 공격은 적에게 심한 피해를 주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유엔군사령부가 전투의 기선을 장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은 필연적으로 방어를 취하게 하였고 10월 협상의 테이블로 적을 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이 확실하다.

10.25 회담이 재개된 이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문제가 중점 논의되었다. 11월 중순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하여 4km의 비무장 지대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11월 27일에 분계선에 합의를 하였다. 유엔군 대표들이 개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개성은 이미 적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12.11부터는 포로송환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쉽게 해결 될것 처럼 보였으나 이 문제는 사실상 휴전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가장 곤란한 문제로 나타났다.¹⁶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1951.10 이후부터 1952.4월 까지의 기간 중에는 전선에서의 극적인 무력 행사는 없었다. 그러나 유엔군측 대표인 조이(Turner C. Joy)제독은 수차에 걸쳐 무력을 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바 있다.

병력수준변동 및 손실 현황¹⁷

1951.7-1952.4 기간

구분	병 력 수 준				손 실	
	중공군	북괴군	유엔군	국 군	공산군	유엔군
1951. 7	459,000	* 북괴포함	550,000	* 국군포함		
10					80,000	20,000
11	377,000	225,000	264,000	272,000	50,000	11,000
12	570,000	"	(33,000)		20,000	3,000
1952. 1	642,000	"	260,000	332,000	20,000	3,000
2			(35,000)		11,000	2,500
3					11,000	2,500
4	908,100	* 북괴포함	700,000	* 국군포함	11,000	2,500

() : 미국을 제외한 참전국

15) Ibid, P. 107

16) Ibid, PP 514~515 포로송환자 : 공산군 82,493 명, 유엔군 13,444 명

17) Ibid. PP. 199~200

- 전쟁발발후 1951.7 까지 공산군 총손실 : 1,200,000 명
 미군 " : 78,000 명
 국군 " : 212,554 명

- 1952. 2 월 현재

공산군 군사력

전차 : 500 대

항공기 : 500~12,500대 (만주기지 : 실제 활동은 하지 않음)

포병 : 8 개포병사단 4 개포병여단,

탄약 : 5 배 증가

위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담개시 초기에 있어서의 병력수준을 보면 유엔군보다 열세한 상태였으나 공산군은 1951. 12 이후 급속히 증강된 상태였고 유엔군은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회담진행과 상당히 관련성을 갖고 있다.

즉 회담개시 후 개성회담지연을 시작으로 10월 회담개시까지 열세를 만회하고 11월 이후 회담에서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강경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전투의 격열도는 손실면을 보면 알 수 있다. 10월 회담 개시후 점점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쌍방이 회담의 진척을 군사작전으로 인해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스스로 자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적의 군사력 증강을 저지하여 회담결과 여하에 따라 그들이 시도할지 모르는 공세에 대비 해 : 공군력을 사용 적의 후방시설을 마비시키려는 작전을 감행하였다.

1951. 11 월부터 1952. 4 월까지 극동군 공군사령부는 근접지원 월별 출격회수가 339회에서 2,461 회에 달하는 한편 방해폭격 및 정찰임무에는 월평균 9,000 회 이상 출격하였다.¹⁸ 계속된 방해폭격에도 불구하고 적은 신속히 수리를 하여 복구하였으며 그 능력은 점점 향상되어 공군작전의 효과마저 의문시 되게 되었다.

2. 유엔군의 군사력 운용의 한계

휴전회담 초기에는 어느정도 사령관에게 권한을 주었고 또한 그 실행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으나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군사력의 뒷받침을 이용한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는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951. 11월 이후 확실해졌다. 이와같은 방침은 유엔군사령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에서 엿볼 수 있었다. 그 대책은 ① 8군으로 하여금 하기 기간중 집결된 군사력으로 적이 원만한 해결안에 도달할 때까지 적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 ② 적이 전투를 이제 기꺼이 종말 짓겠다는 표시로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나타나면 이를 수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8) Ibid, P. 192

그러나 10월 협상이 재개되고 11월 27일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데 합의한 이상 전투로 인한 사상자를 낸다는 것은 인원의 낭비이며 불필요한 것이다. 방책 ②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지상작전에서의 개념은 명백해졌다. 11.12일 밴플리트에게 하달된 명령을 보면 적극방어를 취하되 현 진지의 일반적인 진출선을 따라 방어에 적합한 지형을 확보하라. 그러나 그 공격작전에 1개사단 이상 투입하지 말고 전초진지 정도를 탈환하는 정도로 제한 하라고 하였다. 일선에서 최소한의 작전이외는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투는 소규모의 정찰전으로 고정되었다.

밴플리트는 예하군단장들에게 휴전협정이 서명될 때까지 적대행위는 계속되나 현진지를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작전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사령부로부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유일한 공격작전이란 적의 돌격으로 잃은 중요한 지형지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역습으로 국한하며 불필요한 사상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였다.¹⁹⁾ 이상의 내용을 보면 8군의 작전은 적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며 만일 적이 정전을 원하면 정전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제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전투는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령부와 워싱턴 당국의 태도였다. 다만 군사분계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전 유리한 진지를 얻겠다는 욕망으로 몇차례의 접전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였다.

3. 중반기협상과 작전

1952.5월부터 포로교환문제로 협상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적 압력을 가할 충분한 병력과 해·공군을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점에 있어서는 공산측도 마찬가지였다.

1951.5.1 현재 피아 병력수준을 보면 공산군이 908,100명인 반면 유엔군은 700,000명을 하회하고 있었다. 판문점에서 협상에 기대를 걸수 없게 되었으나 전쟁성격의 변화가 나타날 징후는 없었다. 적은 진지를 강화하고 유엔군을 기다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듯 보였고 유엔군 역시 전쟁의 결말을 짓기 위한 충분한 군사적인 압력을 가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공산측이 현상유지 태도를 변경하려고 기도하지 않는 한 고지전 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5월부터 11월 사이에 있었던 전투로는 불모고지전투, 수도고지전투, 지형능선전투, 백마고지전투, 삼각고지전투, 그리고 저격능선전투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9월부터 10월초까지는 지상작전에 있어서의 전투는 적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찰전은 10월로 끝나고 11월부터는 다시 전선은 소강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수색전과 소규모 공격으로 나타났다.

19) Ibid. P. 180

“내가살고 적도산다”라는 방책이 전장터에 번져 나갔다.

포로송환 문제로 10월 8일 협상은 중지되었고 1953. 4. 26까지 6개월간의 장기 휴회에 들어갔다. 당시 클라크(Mark W. Clark)장군은 대규모작전으로 휴전회담을 타결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 합동참모부에 이를 건의하였다. “유엔군이 휴전을 달성치 못하는 것은 공산군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²⁰ 라고 하면서 평양-원산선까지 공격목표를 설정 지상에서는 포위공격을 실시하는 한편 수륙양면작전과 공수작전을 병행 실시하고 중공내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해·공군작전을 실시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정치 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서만 전쟁을 종결 지으려고 하였다.²¹ 그러자 오히려 공산군측의 공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53년 3월에 들어서자 공산군은 규모는 적었지만 일제이 공세로 나왔다. 3.1 미 제 2사단에 대한 공격, 3.6 국군 제 1사단에 대한 공격, 미 제 7사단에 대한 공격, 미 해병 1사단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에 대해 유엔군은 공군력을 동원 적 후방시설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1953. 2월까지 지속할 뿐이었다.

그런다음 4월에 회담이 재개되고 전투는 다시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이를 두고볼 때 공산군은 휴회기간 말에 들어와서 강력한 공격을 실시 유엔측으로 하여금 회담에 들어오도록 압력을 가하였음이 틀림없다.

4. 후반기 협상과 작전

1953. 4. 26 휴전협상이 재개되자 유엔군은 지상전보다는 공군을 이용한 적 후방지역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하였다.

도시, 철도, 교량에 대한 폭격과 5. 8 수풍댐에 대한 2차공격, 양시지역, 덕산저수지(이저수지 폭격으로 상당한 지역을 범람시켜 효과를 달성) 초산댐 등에 대한 공격이었다. 반면 공산군은 전선에서 작전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투를 가열하면서 판문점에서의 그들 위치를 향상시키려고 기도하였다. 연대규모의 공격을 비롯하여 5월 하순경에는 대대급 이상의 공격을 18회나 실시하였다.

특히 판문점에 인접한 네바다(NEVADA) 전초진지(5. 25 공격)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은 회담에 위협을 가하면서 유리한 지역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다음은 국군이 배치되어 있는 동부 및 중부전선에 대해서 공격을 실시하였다. 6. 1에 판치불지역의 812고지 국군 1군단지역의 앵커(Anchor)고지, 6. 8에는 동부 국군 2군단지

20)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Harper, 1954. P. 151

21) Walter G. Hermes. op. cit. P. 408

1953. 1. 20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된 이후에도 미 정책은 불변

역, 중부전선의 국군 5사단지역, 6.12에는 8사단지역, 그리고 20사단지역의 크리스마스고지에 대한 공격이 실시되었다. 더우기 6.18 이승만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²²해버리자 공산군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지고 주로 국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휴전반대 시위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7월에 접어들어 이승만대통령의 휴전 반대 의사가 완화되고 전투종말이 눈앞에 닥아오자 중공군은 세계에 그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국군에 대한 모욕을 주면서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6월공세에서 타지역에서는 어느정도 공격이 성공하였으나 금성지구 돌출부만은 아군이 끝까지 사수하였다. 이 지역에는 국군 9사단, 수도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우측에 국군 6, 8, 3, 5사단이 인접하고 있었다. 공산군은 7.13에는 무려 5개군을 투입 대공세를 감행하여 28,0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19일까지 일진 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지역은 오늘날 중립지대로 되었다)

5. 공산군의 기도

공산군은 휴전협상 중 전선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탄약을 포함한 제반전쟁물자를 비축하고 차후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들의 군사작전은 협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그들의 의도하는 바 대로 되지 않으면 공세를 취했다. 협상이 어느정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투행위를 자제하면서 다시 군사작전을 위해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협상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군사행동을 자제하다가 협상타결의 실마리가 보이면 강력한 공세행동으로 나와 협상을 성공시키는 방책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1953.3월에 맹렬한 공세로 나오다가 4~5월에 협상이 지연되자 작전도 완하하였다가 5월 25일 불원 정전을 성립시킬 수 있는 안을 유엔군측이 제의하자 5월말 그들의 공세는 가열 되었다. 6.8 포로협정이 타결된 후 6.10~17까지 대규모 공격을 감행 유리한 지형지물을 확보하는 한편 휴전반대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면서 군사적 승리의 선전자료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전쟁 말기 6~7월의 공산군의 공격은 주로 중공군이 담당하여 국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 후에 클라크장군이 술회한 바와 같이 국군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북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며 정전전에 북괴군과 국군의 전력상 균형을 이루려는 의도였다.

1953.4월 협상재개 이후 사상자와 포탄 소모의 현황을 보면 지상전투의 진행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22) 서울신문사(편), 주한 미군 30년, 행림출판사, 1979, P. 282 이승만대통령 반공포로 27,000명 석방.

구분 월별	공 산 군		유 엔 군	
	사상자(추정)	포탄수(발)	사 상 자	105㎍이상포탄수
1953. 4	10,500	51,690	4,343	1,255,015
5	16,454	99,340	7,570	1,747,718
6	36,346	329,130	23,161	※2,710,248
7	72,112	375,565	29,629	2,000,982

※ 한국전쟁 중 최고의 소모량

〈자료 : Walter G. Hermes Truce and Fighting Front P. 477〉

- 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6월과 7월의 사상자 및 포탄소모의 급격한 증가는 전투의 규모와 격열도를 증명하고 있다.

6. 종합분석

한국전쟁 3년 1개월 중 2년간이 휴전회담 기간이었다. 회담이 개시된 1951.7.10~1952.1까지는 협상초기로 회담의제와 군사분계선 설정문제가 주로 논의되었고 1952.1~10.까지는 포로교환문제가 중점 논의되었다. 그리고 1952.10~1953.4까지는 협상이 결렬되어 중단되었고 1953.4.26 본회의 재개로부터 7.27 조인당시까지 상병포로교환과 휴전감시위원단 구성문제가 중점 논의되었다.

회담과 관련된 군사작전은 일반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로 자제하였는데 이는 회담에 악영향을 주고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선의 전투는 소강상태를 이루었다. 그러나 회담결과에 따라 야기될 작전을 대비 진지를 보강하고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키면서 전력증강은 중단됨이 없었다.

군사력 증강면에서는 회담개시 이후 공산측은 월등히 강화된 반면 유엔군측은 참전군측의 반대와 유럽지역에 대한 대비책으로 증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는 주로 공군과 해군의 항공력을 이용 적의 전력증강을 방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협상과 관련하여 군사력 또는 무력의 운용은 공산측이 보다 융통성 있고 적절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때그때 그에 합당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협상대표들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조작극을 연출하는가 하면 군사작전도 상황에 따라 지역이나 규모도 달라졌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도 목적달성에 부합되게 선정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이 휴전협상 전반을 통해 얼마만큼 공산측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단언하기 어렵다. 군지휘관들은 협상의 진전에 따라 군사력을 강력히 운용할 것을 희망하고 계획을 작성 건의하였으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취소되곤 하였다.

그러면 협상과 군사작전을 도표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협상과 군사작전

월 별	회 담 내 용	군 사 작 전	
		공 산 군	유 엔 군
1951. 7. 10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에서 회담개시 • 의제토의 • 군사분계선 문제 • 개성중립지대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 완만 • 병력 보급품 증강 • 차후 작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 완만 • 공군, 해군 항공력 동원 철도, 도로, 병참기지 공격 • 소규모 정찰 실시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 교착 ※주쟁점은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 공산측은 38선으로 복귀 주장 • 유엔군측은 현 접촉선과 개성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 보강 축성진지 구축 • 병력 증강 • 진지전 준비 • 현진지 고수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캔서스-와이오밍선 강화(축성진지화) • 전선주도권 장악 • 국지전 판치불, 단장의능선, 피의능선, 서부전선에서의 전진작전 • 공군, 해군작전으로 적 후방 방해 폭격
10. 7 195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이동 • 회담재개 (10.25) • 군사분계선 • 중립국 감시단 구성 • 포로 자유 송환 • 군사정전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 보강계속 • 정찰대 운용 • 현진지고수 • 병력 및 보급품 보충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정찰 • 수색 • 진지전. 판치불작전 백마고지전투, 단장의능선, 피의능선전투 • 방해폭격계속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향토의계속 ※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건으로 포로송환 문제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선보강 • 포격증가 • 탐색전 • 고지전투 • 군사력증강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선보강 • 고지전투 : 불모고지, 방카고지, 지형능선, 백마고지, 잿슨언덕, 삼각고지 • 수품담폭격 • 평양폭격

월 별	회 담 내 용	군 사 작 전	
		공 산 군	유 엔 군
1952. 10	• 회담결렬중단	• 탐색전 • 군사력증강	• 후방지역 병참선 폭격 계속 • 탐색전 • 적후방폭격
1553.4			교량, 집결지, 보급소 철도, 댐, 도시
4.26~ 7.	• 회담재개 • 포로교환타결 • 상병포로교환 * 반공포로석방 • 중립국 감시위원회 • 휴전조인	• 대대규모이상 공격 • 중요지형공격 • 중공군의 한국군 진지 공격 • 금성돌출부공격	• 기습전, 수색전 • 고지전투 금화, 금성, 수도고지 지형능선, 백마고지 저격능선 • 공군폭격 수품댐, 철도, 교량, 덕산저수지

VI. 결 론

2년간의 휴전회담은 전선에 영향을 주었고 군사작전은 회담을 지연시키는데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였다. 1951년 여름 공산측의 회담지연 정책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하였고 그 이후 제한된 작전이나 군사적 노력은 계속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군측의 전선에서의 승리는 적측으로 하여금 회담재개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4만명이라는 사상자를 내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1951.11에 잠정적인 비무자선을 고정시키고 지상에서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공산군은 오히려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고 전투는 10마일 남짓한 지역을 오르내리는 행동반경을 좁히고 말았다.

물론 인명을 경시하는 공산측으로서는 지상에서의 압력이 어느정도까지 그들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협상기간 중 유엔군은 인명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공군력과 해군력을 이용 적 후방 병참선을 포함한 시설, 도시, 집결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포격을 가해서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였다.

한편 공산군은 전쟁 말기에 와서는 협상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전장을 이용하고 군사적 승리를 건우려고 하였다. 그들은 정치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이 보이기만하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겼다. 작은 고지 하나라도 손에 넣으므로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명손실같은 것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유엔군이 군사적압력 특히 지상에서의 압력을 지속적이고도 과감하게 그리고 지역을 확대해서 실시했다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서 협상을 이끌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회담이 제의되고 개시할 때부터 상대방을 분석하고 그들의 속성을 먼저 파악했어야 했다. 최초 회담장소를 개성으로 정하고 다음 판문점으로 결정한것만 보아도 그들의 고도의 술책에 말려든 결과가 되고 말았다. 개성이나 판문점이 아닌 다른 장소가 회담장소로 선정되었다면 군사력을 사용하여 회담조인전에 점령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회담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성역화 되고 군사적 행동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공산주의자들과의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도 강력한 힘의 배경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한 정치적 방법으로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매듀, B. 러지웨이, 김재관역, 한국전쟁, 正宇社, 1981.
- 陸軍士官學, 韓國戰爭史, 日新社, 1983.
- 陸軍本部(譯),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陸軍本部, 1983.
- 陸軍本部(譯), 정책과 지도, 陸軍本部, 1984.
- 문교부(편), 6.25 실증자료, 성문인쇄소, 1975.
- 웨렌마크T. R. 안동립역, 한국전쟁, 범한출판사, 1967.
- 서울신문사(편), 주한미군 30년, 행림출판사, 1979.
- 陸戰史 研究普及會編, 會議と作戰, 東京原書房, 1973.
- 陸戰史 研究普及會編, 停戰, 東京, 原書房, 1973.
- 國防部 韓國戰爭史, 대진말기(9), 1979.
- Hermes, W. G.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S Army, Washington, D.C. 1966
- Ridgway, M.B. The Korean War, N.Y. Doubleday, 1967.
- Schunabel, J.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US, Army, Washington D.C. 1972
- Appleman, Roy H.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 Army, Washinton D.C. 1960.
- Berger Co. The Kerean Knot,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1957.
- Rutherford, W. Poats, Decision in Korea, Tokyo, 1954.
- Fehrenbach, T.R. This Kind of War. N.Y. Mac Millan, 1963.

- Caridi, R.J. The Korean War and American Politics, Univ. of Pennsylvania Press, 1968.

ABSTRACT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Truce talks
and Military operation in the Korean War

Lee, Chung - Jin

The last two years of the Korean War was characterized by a phenomenon in which political talks and military operations were closely related.

Recognizing the difficulty of winning a decisive victory through military operations, bo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mmunists sought to settle the war while negotiating from 10 July 1951 until the end of the war. But military operations continued to be used as a means of negotiating the truce agreement.

Analyzing how military operations were employed and how they impacted the truce talk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ommunists used military means more appropriately for political ends than the United Nations did.

Limiting the use of ground forces but that of the air forces, the United Nations side did not take full advantage of their strength. The paper suggests that the free country should have and use strong military power during political talks with any Communist country.